

## 멕시코 민주화 도정에서 1968 학생운동의 의미

김 달 관  
단국대학교

Kim, Dal-Kwan. (2002). El significado del movimiento estudiantil de 1968 en el proceso de democratización mexicana. *Revista Iberoamericana*, 13, 1-25.

El 2 de julio de 2000 México dio por finalizada, en las urnas, una de las etapas más interesantes y conflictivas de su historia política, aquella que durante 71 años (1929-2000) había mantenido en el poder a algún representante del PRI. El 2 de julio, bajo gobierno del PRI y bajo una ley electoral que, aunque reformada en sucesivas ocasiones, se caracterizaba por cierta tendenciosidad, el candidato Vicente Fox, perteneciente al partido de oposición PAN, vencía en las elecciones generales dando un nuevo rumbo a la política de un país que no conocía otra que aquella presidencialista y dirigista que los hombres del PRI habían articulado.

Sin embargo, no es una victoria coyuntural y espontánea. El triunfo en las urnas del 2 de julio es la culminación de un proceso de liberalización política específicamente mexicano que se inició consistentemente allá por el año 1968 con el beligerante movimiento estudiantil y que ha requerido para su realización la nada insignificante cifra de 32 años (1968-2000).

En 1968, el movimiento estudiantil que desestabilizó el sistema político no era únicamente un movimiento civil organizado en torno a ideas políticas más o menos aperturistas, sino la voz de protesta de una clase media urbana que había sido sistemáticamente apartada del pacto corporativo. La crisis económica que vivía el Estado en aquellos momentos y los problemas internos de la elite en el poder que disminuían su efectividad decisional constituyeron un caldo de cultivo extremadamente fértil para las protestas de un grupo económico que se veía sistemáticamente relegado de las grandes decisiones.

Basando en estas perspectivas, esta investigación aborda el significado del movimiento estudiantil de 1968 en el camino hacia democracia mexicana y la conceptualización del proceso de la liberalización política de México.

## I. 들어가는 말

비센테 폭스(Vicente Fox) 대통령이 집권한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간다. 2년전 2000년 7월 대통령선거 공식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행한 야당후보 대통령 당선 인정을 발표하는 당시 세디요 대통령의 차분한 목소리와 멕시코 국민의 기쁨과 희망의 환호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2000년 7월 2일 멕시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소속(PAN:국민행동당) 후보 비센테 폭스(Vicente Fox)가 전통 여당이었던 제도혁명당(PRI) 후보 라바스티다 오초아(Labastida Ochoa)를 패배시켰다. 이로써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1910년) 이후 멕시코 민주화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의 승리는 멕시코 역사상 71년 동안(1929-2000) 전통적 여당이었던 제도혁명당의 역사적인 패배로써, 멕시코에서 새로운 정치지형을 성취했다. 70년 이상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했던 제도혁명당의 패배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으며,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소속 대통령 후보의 승리는 71년 동안 제도혁명당이 구축한 “6년 군주제”(monarquía sexenal)를 무너뜨렸다.

현대적 정치체제를 제도화한 1929년부터 1968년 학생운동 이전까지는 특별히 멕시코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8년부터 2000년까지 32년 동안 5번의 위기가 발생했다. 5번의 위기가 발생한 해는 1968년, 1976년, 1982년, 1987년, 1994년이다. 1968년에는 사회적 위기의 성격인 학생운동이 발생하며, 동년 10월2일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된다. 1976년에는 경제위기적 성격의 멕시코 화폐인 페소화 평가절하가 단행된다. 1982년에는 경제위기로써, 동년 2월에 또다시 페소화 평가절하가 단행되며, 8월말에는 8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곧이어 9월에는 은행 국유화를 단행하며, 11월에는 IMF에 서명하게 된다. 1987년도 경제위기로써 동년 10월에 증시가 폭락하게 되며, 11월에 평가절하가 단행된다. 또한 1994년에도 경제위기로써 12월 중순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다른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경제 위기의 발생으로 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코포라티즘 연합 내부공간에 균열을 가중시켰다. 체제 정당성

에 이러한 심각한 균열은 1985년 지진사태에서 발생한 사회적 동요와 여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소장 비판그룹인 “민주파”(Corriente Democrática: CD) 형성이후에 1986년에 여당인 PRI 자체의 분열에 기원을 둔다. 특히 1985-1988년 동안에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체제를 위협한 상황에 내몰았던 조건들이 천천히 생성되고 있었다. 특히, 1988년은 멕시코 정치체제의 가장 위험했던 시기로써, 그 동안의 3번의(1976, 1982, 1987) 경제위기는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며, 이러한 위기의 구조적 계기는 1988년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인화성 있는 정치적 위기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논선상에서 여당인 제도혁명당의 ‘민주파’는 여당을 탈당하며, 민주파와 진보세력들이 합쳐 민족민주전선(Frente Democrático Nacional :FDN)을 결성하며, 이후에 1989년 새로운 신생야당으로써(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PRD, 민주혁명당) 출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1988-1997년까지 9년 동안 정부와 여당인 PRI는 권력유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치적 자유화를 시도했으며, 다른 한편 시민사회와 신생야당인 PRD가 주도하는 선거법 개혁을 통한 정치적 틈새공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집중했으며, 그러한 정치적 틈새공간을 활용해, 마침내 2000년 7월 야당 소속(PAN)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68년에 시작해서 마침내 멕시코는 2000년에 민주주의라는 고지에 이르렀다. 선거법 구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87-1996년 9년 동안 4번의 정치·선거 개혁은 시민사회와 야당인 민주혁명당(PRD)과 국민행동당(PAN) 노력의 결과로써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에 중요한 선거개혁을 실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통령교체(정권교체)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승리가 아니다. 2000년 7월의 선거승리는 1968년 학생운동으로 시작되었고 32년이라는(1968-2000) 긴 세월이 필요했던 독특한 멕시코 정치자유화 과정의 분수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이행 전문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스페인에서 발생한 정치이행을 “협약이행”(transición pactada)이라 부른다. 반면에, 멕시코에서 발생한(1968-2000) 정치이행을 필자는 “투표이행”(transición votada)이라 명하고자 한다. 즉 투표한 선거인 뿐 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거법 구조 개혁을 통해서 마침내 선거인들의 실질적 투표실천을 통해 이룩한 정치이행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치이행은 경제위기로써 4번의(1976년, 1982년, 1987년, 1994년) 위기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의 물적 기반을 충족시

킬 수 없을 만큼 권위주의 정권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 하락하게 된다. 한편 1985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사태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복구작업으로 어려운 자연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인식했으며, 시민들의 시민의식 각성과 시민사회의 놀라운 능력을 실감했다. 다른 한편으로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시비는 시민사회가 더욱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당인 제도혁명당에서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으로 변신한 민주혁명당과 기존 야당인 국민행동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선거법 개혁에 노력을 집중했다.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1994년, 1997년, 2000년 선거에서 하원구성과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마침내 지배권력 구조 변화까지 성취했다. 다시 말해서, 멕시코 정치구조가 그 동안 직면했던 지속적이고 뿌리깊은 모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실천과정으로써, 선거법 개혁과 그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피드백 과정으로써 멕시코 정치이행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정치자유화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정치적 적응과정이 아니며, 선거법 개혁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직접적 결과이다. 즉, 멕시코 정치자유화 과정은 경제적·정치적 공간에 대한 선거공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의 구축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멕시코 정치이행에 대한 기본적 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멕시코 민주화 과정에서 1968년에 발생한 학생운동의 발생과정과 의미를 분석하며, 멕시코 민주화 과정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1968년 학생운동

1968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한 학생운동의 클라이막스는 멕시코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68년 학생운동을 연구한 세실리아 이마스(Imaz Bayona, Cecilia)는 1968년 학생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Imaz 1975: 387)

1968년 학생운동은 다양한 세력의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한계와 사회모순에 의한 다양한 세 세력의 축적된 불만의 표출로 이해된다.

이러한 불만은 1968년까지 실질적으로 기존 멕시코 정치체도에 어떠한 정치적 의견 표출도 없었던 중산층의 기존체제에 대한 반감의 발전으로부터 기원한다. 어느 정도 교육받은 중산층 대부분이 1968년 학생운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중산층의 상당한 정치적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1968년 학생운동의 정치화는 사회에서 존재하는 범위 안에서 성장과 확대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중산층 불만족의 의식을 반영한다.(Imaz 1975: 387) 이것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획득했던 교육자유와 무상교육을 통한 공식 교육제도에서 교육받은 후손을 대표하는 중산층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치공간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상인협회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조직되었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가들도 정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중산층은 코포라티즘 외부에 실질적으로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표현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68년 학생운동은 젊은이들의 혁명일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중산층을 대표한다. 1968년 학생운동 분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회갈등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멕시코 사회에 영향을 끼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좀더 깊이 있는 원인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68년 학생운동의 사회투쟁의 이해를 위한 깊이 있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원인들도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1968년 학생운동의 연구자인 세르히오 세르메뇨(Sergio Zermeño)는 68학생운동을 4단계로 구분했다: 1) 발전단계, 7월 24-30일; 2) 상승단계, 7월 30일-8월 27일; 3) 하강단계, 8월 27일-9월 18일; 4) 폭력적 해산, 9월 18일 이후이다. (Zermeño 1978: 11-54) 멕시코의 일반적 정치특징을 염두하면서 1968년 학생운동의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자.

### II.1. 학생운동 발발: 1968년 7월 24일-30일

1968년 7월 22일, 멕시코 자치주 중심부에 위치한 라 시우다델라(La Ciudadela) 공원에서 미식축구가 있었다. 이 경기에는 “이삭 오체테레나”(Isac Ocheterena)라고 불리는 사립고등학교 팀과 국립과학기술대(Instituto Politécnico Nacional: IPN) 부설 직업학교 학생들과 여러 명의 고등학교 학생이 합쳐진 팀인 “로스 시우다델로스”(los ciudadelos)가 미식축구를 하고

있었다. 종종 볼 수 있듯이 동네 청소년들의 이 운동경기는 약간의 다툼으로 끝나버렸다. 이때 사립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오체떼레나 팀원들은 직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몇 대 구타를 당했다. 이것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 몇몇 고등학생을 강화시킨 사립학교 학생들이 7월 23일 제2 직업학교(la Voacional 2)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제2·제5 직업학교 학생들은 특수기동경찰이 출동해 수동적인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를 공격했다. 몇 개월 후면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정국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을 출동시켰던 것이다. 이후에 제2·제5 직업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특수기동경찰은 그들에게 접근해서 학생들을 구타했으며 일부는 부상을 당했다.(Zermeño 1978: 11) 오래전부터 국립과학기술대(IPN)에 속해 있는 학생기구인 전국직업학생연합회(Federación Nacional de Estudiantes Técnicos :FNET)는 부당한 경찰의 공격과 제2·제5직업학교 점거에 대해 항거하기 위해 7월26일에 데모를 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같은 날 몇 블록 옆에서 전국민주학생연합회(Confederación Nacional de Estudiantes Democrático : CNED)에서 조직한 쿠바혁명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었다.(Zermeño 1978: 12) 이 두 개의 대중집회는 멕시코자치주(Departamento del Distrito Federal)의 공식허가를 갖고 있었다. 이 두 대중집회에 약 5만 명의 학생이 운집했으며, 이후 약 5천명의 학생이 소칼로(Zócalo: 멕시코시 중앙에 위치한 광장)로 향해 행진하려 했다. 이것은 질서혼란을 우려해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Zermeño 1978: 12)

다음날인 7월27일 멕시코국립대(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UNAM)부설 제1·2·3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날 경찰의 강경 대응과 동료들의 구속에 대한 항의로 멕시코국립대 부설 제1·2·3 고등학교를 점거했다.(Zermeño 1978: 13) 학생들의 소요는 7월 29일에 다시 격해졌으며, 같은 날 자정에 정부는 군대의 개입을 명했다. 7월 30일은 68학생운동의 제1단계와 제2단계를 가름하는 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즉 형태적으로 볼 때 시내 한 복판에 위치한 대학가에 군대개입과 폭력의 정도는 정부방침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는 날이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들이 풀려났지만 주동자 14명은 구속되었다.(Zermeño 1978: 14) 당시 많은 멕시코 국민은 학생과 정부충돌에서 정부의 미리 계획된 도발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많은 신좌파(la Nueva Izquierda) 그룹들은 68학생운동의 시발점을 디아스 오르다스(Díaz Ordaz:1964-1970) 정권의 고위관료들이 차기 대통령을 염

두에 둔 권력엘리트간의 권력투쟁으로 설명한다. 다른 한편, 그러한 도발이 외국에서 유래한다는 것이다. 가장 논쟁적인 가정은 정부의 도발성이 외국에서 유래한다는 것으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멕시코 정부는 공산국가들을 비난했다; 2) 멕시코의 공산당이(Partido Comunista) 미국 CIA 사주로 사회불안을 조성했다; 3) 멕시코 민중사회당은 (Partido Popular Socialista) 미국 FBI를 비난했다.(Guevara 1987: 1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8학생운동의 기원은 여당인 제도혁명당의 폐쇄성과 정치공간에 다양한 정치세력 통합부족이 서로 상승 작용한 결과이다. 이것은 이 사건이 정치적 갈등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강한 폭발력을 인지했음에도 특수경찰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바 없다.

## II.2. 학생운동의 증산층의 참여:1968년 7월 30일-8월 27일

7월 30일 새벽 정부는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곳의 고등학교를 점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학생소요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취한 수단은 완전히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국가와 대학 관계에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8월 1일 UNAM 총장과 몇몇 대학당국은 UNAM과 국립과학기술대(IPN) 등 그 밖의 대학의 학생과 교수의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대학 자율권의 침해에 항거하기 위해 큰 규모의 데모를 했다. 8월4일 조직된 도시의 학생들이 곳곳에 출현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조직화는 일상적인 데모·회합 등과 같은 일상적인 투쟁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운동의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에 설명하려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8월5일 국립과학기술대 투쟁연합회(Comité Coordinador de Huelga)는 마침내 대규모 집회를 거행했는데, 그 집회에는 약 10만의 학생이 운집했다. 이 대규모 집회에서는 대학자율권 보장을 주장하며 이 운동에 일반국민도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Zermeño 1978: 18) 8월 13일-27일 동안에, 1968년 학생운동의 최절정에 이르렀다. 이 시기동안 주요 학생 활동공간은 학교를 벗어나 있었다. 집회들은 기본적인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간단한 모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정치적 쟁점의 토론 결론이 나면, 모든 학생들은 조직된 집회를 가졌다. 이러한 사회적 파장은 빠르게 거의 모든 사회부분에 퍼졌다. 예를 들면 공무원·노동자·중소상인·도시 주변부 층까지도 빠르게 1968학생운동의 인화성이 증폭되고 있었다. 이 운동의 조직화와 관련해

서는 단일한 조직적 특성은 부족했다. 이 운동에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성향이 참여했으며, 그 핵심은 전문성, 사회적 기능, 전통적으로 특별한 정치적 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사와 학생들의 주류가 되었지만 다양한 사회계층도 참여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1968년 사회운동의 모자이크를 구성했다. 이 모든 세력들은 공통의 희망을 갖고 운동에 참여했지만 그들 간에는 커다란 이데올로기적 편차가 존재했었다.(Guevara 1987: 25-26) 8월 24일 교수연합회(Coalición de Profesores)는 전국투쟁위원회(Consejo Nacional de Huelga :CNH)만이 이 학생운동의 유일한 대표체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전국투쟁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6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Ramírez 1969: 37-39)

1. 정치범 석방
2. 경찰총장 루이스 쿠에토(Luis Cueto Ramírez), 경찰부총장 라울(Raúl Mendiola) 그리고 특수기동경찰대장 아르만도(Armando Frías)의 해임
3. 억압의 직접적 수단인 특수기동경찰대 폐지와 유사한 억압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대 창설금지
4. 국가공격에 대한 사법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연방헌법 제145조 1항과 2항의 폐지(국가전복기도)
5. 7월 26일부터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에 대한 배상
6. 경찰, 특수경찰, 군대의 책임자 규명

위의 6개의 요구 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의 요구들은 이 운동을 규정하는 일관적인 이데올로기가 부재하며, 국가의 억압적 능력을 규정짓는 규칙들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게 배어 나온다. 또한 특정 사회세력의 계급의식 투영이 없는 일반적인 용어인 국민일반의 바람으로 표현되었다. 68학생운동의 멕시코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968년의 멕시코 학생은 교육위기, 학교교육에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일상적 삶과 사람간 관계를 지배하는 소외형태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 국가의 한 대청축인 학생들을 정치적 억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부분들을 무차별적으로 포함시키는 용어인 '대중일반'에 위치 지운



다. 대중일반과 국가는 1968년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멕시코 사회를 투영하는 2개의 대립각으로 이해했다.(Guevara 1978: 26)

8월 27일 이 운동의 가장 많은 운집인원인 40만 명이 소칼로에서 데모를 했다. 그때 40만 인원은 이 운동 6개 요구사항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압력으로 소칼로 광장에 운집했으며, 대통령이 하원에서 매년 연례보고를 하는 9월1일까지 공공토론을 하며 소칼로 광장에서 투쟁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또다시 군대가 소칼로 광장의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투입되었다.(Zermeño 1978: 124)

### II.3. 운동의 의견 불일치 그리고 분열: 8월 27일-9월 18일

8월 27일 이후, 1968년 학생운동은 내부분열과 일관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8월 28일 이후 경찰은 거리에서 전단을 나누어주거나 길거리에서 모임을 갖거나 하는 학생들에게 구타와 연행을 시작했다. 1968년에 개최될 올림픽대회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군인으로 조직된 '올림픽부대'(el Batallón Olimpia)는 학교를 무단 침입, 학생 및 일반시민을 공격했으며, 건물들을 무단 사격했으며 사람들을 납치했다. 군인들은 유사군인조직 스타일로 그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민간인 복장을 입고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했다.(Guevara 1978: 30-31)

9월 9일 UNAM 총장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9월 1일 하원 대통령의 연례보고에서 핵심적인 사안들은 충족되었음을 선언했으며 학교 정상화를 요구했다. 전국투쟁위원회의 한 분과는 총장의 의견에 명확히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며 '침묵시위'를 주장했다.(Carrion 1969: 65) 9월 13일 침묵시위에 약 25만 명이 운집했으며, 질서를 유지하며 소칼로 공장으로 행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UNAM의 군대 투입을 승인했다. 9월 18일 대학(UNAM)은 1만 명의 군인에 의해 다시 점거되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은 다시 증폭되었다.(Guevara 1978: 26)

9월 18일 이후 무력폭력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Carrion 1969: 64)

#### II.4. 들랄렐톨코 학살: 9월 18일 이후

이 단계의 주요한 특징은, 올림픽 개최 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측 억압의 급격한 증가와 다른 한편, 학생들의 집요한 투쟁이다. 군대에 의한 UNAM 점거 다음날인 9월19일 UNAM 총장은 다시 한번 ‘대학의 도덕적 방어’(defensa moral de la universidad)를 위한 학생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UNAM대학 총장입장에 반대하는 의회와 여당인 제도혁명당의 공격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9월23일 UNAM 총장은 사퇴를 선언했으며, 교수연합회는 만약 정부가 총장 사퇴를 받아들인다면 7천 명의 교수들도 동반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교수집단의 위협 하에서 정부는 9월 25일 총장 사퇴를 반려했으며, 9월 30일 군대도 대학에서 철수시켰다. (Zermeño 1978: 124) 계속된 정부의 실정은 학생운동 앞에 그들의 무능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1968년 학생운동과 어떠한 순간이라도 대규모 노동자 위협으로 표출될 수 있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갈등과 올림픽 개최 시기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1968년 학생운동의 종지부를 해결하려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는 강한 후욕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들랄렐톨코 학살은 들랄렐톨코(Tlatelolco)의 3문화광장에서(la Plzaza de las Tres Culturas :현재 멕시코시 외무부 근처에 위치함) 10월 2일 발생했다. 그 날 3문화 광장에서 학생·학생가족·어린이·노동자·일반시민 등 약1만 명이 참석한 평화로운 모임이었지만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날 모인 사람들에게 경찰이 경찰봉의 무자비한 사용 그리고 사격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이 있었던 건물에 군대는 포격 사격도 자행했다. 10월 2일 학살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Zermeño 1978: 131-161) (아직까지 들랄렐톨코의 밤에 발생한 사망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들랄렐톨코의 광장에서 사망한 사망자는 약 50여 명 정도라고 발표했으나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2천 명에서 5천 명 사이로 알려진다.) 이 사건은 여러 상황적 요인들과 원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정치적 에피소드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러 상황적 요인들에 의한 정치적 에피소드이면서 동시에 독점적·폐쇄적·비관용적인 정치구조와 정치체제에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는 사회세력에 대해 그러한 의문을 허용하지 않고 갈수록 강요하는 깊은 구조적 문제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Rubén 1971)

### III. 1968년 학생운동의 의미

복잡하면서 많은 측면을 내포하는 사회 현상으로써 1968년 학생운동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정치적 측면과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즉 1968년 학생운동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써 1968년 위기는 그때 당시 멕시코 정치체제 내에서 발생한 정치적 균형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1968년 위기의 충격은 국가로 하여금 다양한 형식의 개혁을 통한 정치개방의 점진적 과정을 강요할 정도의 규모였다. 처음에 이러한 개혁은 에체베리아(1970-1976) 행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우호적 정책과 호선 덕택으로 중산층의 정치적 입장을 변화시켰고, 이후에 중산층의 행동을 규정짓는 생각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1968년 위기는 사회·정치적 변화에 근거를 둔다. 멕시코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다른 구조적인 요소는 경제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는 어떻게 멕시코 정치체제에 새로운 조건으로 나타났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다양성과 불평등으로 관통하고 있는 한 사회를 서로 연결하는 관계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중요성은 그들 관계를 규정하는 권력의 자기장을 벗어나는 어떠한 정치운동 가능성도 억제한다. 권위주의 정권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발전 지체는 사회·정치적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로 지속적 경제성장은 농촌인구보다 빠른 도시인구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 수입대체 전략은 집중적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내부시장을 생성시킨다. 이에 따라 중산층은 다른 사회부문보다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성장한 중산층은 국가에 의해 실행되는 경제발전 전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획득한다. 좀 더 넓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1968년 학생운동은 1930년대 코포라티즘 협약에서 배제된 중산층의 반란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원하는 경제력과 정치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기 때문이다.(Cansino 1995: 91-92) 둘째로 60년대 말 1940년대부터 시행한 멕시코 자본축적 모델의 구조적 부식현상과 특별히 1954년에 시작된 “안정발전모델”(desarrollo estabilizador)이라고 불리는 경제발전전략 고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경제모델은 외국투자와 외부저축을 통한 산업화 전략으로써 이 전략은 멕시코 경제의 종속성을 심화시켰다. 다른 한편, 이러

한 산업화 전략은 국내적으로 농·수산업 분야의 고통과 농·수산업의 저성장에 기반하는 균형적 산업발전이 아닌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부족한 불균형산업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Macías 1979, Perzabal 1979) 이러한 의미에서 이 경제발전 모델의 고갈은 비록 즉각적인 정치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위기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었다. 1968년 학생운동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모순을 조절하고 1968년 학생운동에서 중요하게 표현되었고 갈수록 점증하는 노동부문의 문제제기에 대처하는 국가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역할은 멕시코에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기업 부문의 진작은 전통적 정치를 담당하는 정부부문의 자율성을 침식했다. 즉 민간부문을 진작시키는 전통적인 정치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민간부문에 의한 자본 집적·집중은 투자 회수, 자본 도피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이해와 차이가 발생할 때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Maxfield 1987)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변화의 틀 내에서 국가헤게모니의 지속성은 코포라티즘 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멕시코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충족시켜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국가 헤게모니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기업가의 측면에서 국가는 일반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국외 민간투자 장려를 보장할 수 있어야하며, 또한 정치안정과 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중산층의 정치와 대표성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1968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1968년 후반부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의사·교수·전문직 자유직종도 그들의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Guevara 1978, Imaz 1975) 마지막으로 일반대중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사회적 기능이 위협하고 잠재적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깨지기 쉬운 균형상태에서, 68학생운동은 멕시코 정치체제를 뒤흔들었으며, 지배세력의 중요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민감하게 변화시켰다. 현대 멕시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끄트머리에 도달하면서 정치체제의 지속성은 갈수록 불안정해졌다.

결과적으로, 68학생운동은 민간부문이 경제에서 중요성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반면에 국가 역할의 감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했던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행동과 학생부문의 행동은 국가자율성 제한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핵심적인 목표를 공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국가자율성이란 다양한 사회그룹을 분리해서 유지하며 계급과 정당주의 보다 위에 있는 상위개념에 위치 지을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다. 이러한 국가자율성의 목표는 주어진 상황에서 국가의 고유한 목표에 의해 국가가 다양한 이해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단지 학생들의 경우에 정부와 협상카드가 자본이 아니라 권력의 권위주의적 사용에 도전하면서, 정치권력 획득에 필수 요소인 제도적 정당성에 저항했다. 이런 관점에서 1968년 학생운동 멕시코 사회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운데 두고, 구스따보 디아스(1964-1970) 행정부와 중산층 사회세력과의 권력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Semo 1979: 28-35) 1968 사건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항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대립각인 사회그룹의 취약함을 보여주었으며, 독립적인 정치참여의 정당성과 정치 개방이 긴급하게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비록 1968 학생운동은 선거참여의 증가로 즉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시 사회적 가치와 행동에 변화를 주도했으며, 1985년 멕시코 지진 발생시 표출되는 시민의식과 시민사회 출현에 단초를 제공했다. 즉 1968 학생운동은 문화적 혁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치체도의 균형을 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코포라티즘 연합구성의 재배치(재구성)를 촉발시켰으며(Semo 1979: 24), 마침내 살리나스 정부는 새로운 코포라티즘 구성논리를 시도했으나 멕시코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제도적 균형 점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2000년 선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멕시코 정치제도 균형은 급격히 붕괴되었다.

#### IV. 멕시코 자유화과정 개념이해도

본 연구의 핵심적 개념은 멕시코에서 발생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투표이행’(transición votada) 모델 안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도는 1970-2000년까지 30여 년 동안 4번의 경제위기는(1976, 1982, 1987, 1994) 권위주의 정권의 효율성 하락으로 정치위기로 전환되는 바, 정치위기의 결정적 시기는 1988년과 1994년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는 정치정당성 하락으로 연결되며, 1985년 지진사태 이후 활발한 시민사회와

두 야당(PAN, PRD)은 함께 선거법 개혁에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에 선거법 개혁을 성취했다. 이러한 선거법 개혁은 정치 공간을 점차적이고 정기적으로 개방시키고 개방된 정치 틈새공간으로 민주주의 공간을 조금씩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다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선거법 개혁에 피드백 효과를 창출했으며, 마침내 2000년 7월에 마침내 멕시코 호는 민주주의라는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다. 다시 말하면, 경제위기는 정치위기로 전환되며, 이러한 정치위기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노력으로 보다 민주화된 선거법 개혁을 성취하며, 새로운 선거법으로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지금은 최근 30년 간 멕시코에서 발생한 위기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976년 평가절하: 1968년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중산층의 불만과 긴장을 야기했던 “동반발전”(desarrollo compartido: 1970-1976)이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의 추진과 중산층과의 화해정책을 시도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 당시까지 여러 경제영역에서 자본축적이 가능했던 대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당시까지 정부와 협력을 과기할 정도까지 다다른 대기업의 불만이 표출되었고, 1954년부터 시작된 고정환율제도를 변동환율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1976년 멕시코 폐소화 평가절하로 나타났으며 22년 간 실시되었던 외환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충격으로 나타났다.(Cárdenas 1996: 24-25) 1976년 멕시코 폐소화 평가절하로 다시 한번 제왕적 멕시코 대통령의 위상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중산층이 아닌 기업부와 화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었다.

▶ 1982년 은행 국유화: 로페스 포르티요(López Portillo: 1976-1982) 정부의 핵심전략인 석유 수출과 함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2개의 중요한 우선 순위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에너지분야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식량의 자급자족이다. 대통령의 당선된 로페스 포르티요 대통령 초기에 세 단계로 실시할 핵심적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위기 “관리”의 첫 번째 2년(1977-1978), 경제 “안정”을 위한 두 번째 2년(1979-1980), 경제 “발전”의 세 번째 2년(1981-1982). 이 경제계획을 통해 로페스 정부는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려 시도했다. 계획의 첫 번째 실시를 위해 “생산을 위한 연대”(Alianza para la Producción)를 실시했으며, 두 번째 단계는 석유생산을 증대했으며, 마지막

으로는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신용에 접근했다.(Cárdenas 1996: 108) 이렇게 해서, 1977년에 국가전체 수출 27%를 차지하는 석유수출이 있었고, 1981년에는 61%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는 1981년 6월 후부터 하강하기 시작했다. 석유가격 하락은 수출에서 멕시코 수입을 급격히 하락시켰다. 1981년 6월-1982년 8월 동안 로페스 정부는 많은 예상치 못한 부문에서 경제위기 징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두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 15개월 동안, 첫 번째 시기는 석유가격 하락과 그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 경제발전에 위험을 주지 않는 일시적인 장애로 인식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첫 번째 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1981년 후반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해 위기의 지속적 악화로 나타났을 뿐 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구조 불균형으로 나타났던 위기는 정부의 일반적인 신뢰와 신용을 하락시키면서 정치적·사회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마침내 로페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1982년 9월 1일, 정부는 은행의 국유화를 발표한다.(López 1982) 이렇게 로페스 정부는 통치협약의 위기의 절정의 순간에 직면해 있었다. 왜냐하면 은행 국유화는 코포라티즘 협약의 중요한 멤버인 기업가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 1987년 증권시장 붕괴: 멕시코 경제는 미겔 데 라 마드리드(Miguel de la Madrid: 1982-1988) 대통령이 그의 임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었으며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에 1982-1987년 동안의 경제지표를 보면, 1983-1987년 동안 GDP(국내 총생산)는 0.03% 하락했으며, 1인당 GDP는 1.9% 하락했고 1982년 인플레이션은 100% 상승했으며, 1987년 말에는 131.8% 상승했다.(Cárdenas 1996: 141-142) 1985년 국제석유시장은 불안정했으며, 수출가격은 1985년 1배럴당 25.33달러에서 1987년 8.6달러로 하락했다. 1986년 석유수출가격 평균은 배럴 당 11.86달러였다. 석유가격 하락은 그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로서 경제활동의 축소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GDP의 3.8%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농수산 분야는 2.7% 하락했으며, 산업 부문은 전년대비 부가가치의 5.8% 하락했다.(Cárdenas 1996: 144-145)

사회적으로는 1985년 9월 19일 멕시코에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멕시코에서 가장 어려운 자연재앙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1985년

지진시 멕시코 시민사회의 참여는 정부보다 훌륭한 조직력으로 지진복구 과정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Cansino 1998: 180-181) 이 사실은 2년 후에 정부와 시민을 연계시켜 주는 교량으로써 1987년 멕시코자치주 대표회의(Asamblea de Representantes del Distrito Federal) 창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게 멕시코자치주(D.F)의 정치민주화는 시작을 알렸다.(Salazar 1996: 202-203) 정치적으로는 1986년 10월 1일 여당인 제도혁명당(PRI)내의 정치적 입장차이로 인해 비판적 소장그룹인 '민주파'(Corriente Democrática)가 형성되었다. 민주파는 대통령 후보 선정과정의 민주화와 정당내부 민주화 그리고 여당의 좀더 공평한 경제발전 모델을 요구한 바 있다.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내 민주파는 여당인 제도혁명당을 탈당했다. 그리하여 1988년 '민주파'와 여러 정치 세력이 함께 '전국민주연합'(Frente Democrático Nacional: FDN)을 창설했다. 1988년 연방선거 이후에 전국민주연합(FDN)은 정식 정치정당인 "민주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 PRD)으로 변신했다. PRD는 멕시코 정치구조에서 선거직을 통한 대표성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들의 합리적인 기능 방식으로써 민주주의를 정치의제로 제기하면서, 그들의 매일의 정치적 실천은 제도혁명당으로 하여금 전략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도 멕시코 증권 시장은 1983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 10월 증권시장 몰락 때까지 지속되었다. 1987년 중반쯤 종합주가지수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과도하게 보여지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거품 수치로까지 성장했다.(Aspe 1993: 148) 결국 1987년 10월 증권시장의 붕괴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은 1987년 11월에 급격한 평가절하로 나타나는 바, 이것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적 참여자들이 좀더 많은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갈등으로 이해되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멕시코를 몰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초인플레이션은 제도적인 사회 각 분야의 정치적인 갈등이 경제적으로 표출되는 장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정치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 1994년 금융위기: 첫째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개시되는 날짜이면서, 선거의 해인 1994년 1월 1일 새벽에 일단의 차아빠스 원주민이 차아빠스 여러 지역을 점거했다. 둘째로 1993년 11월 27일 1994년 대통령선거에서 PRI



후보로 지명된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Luis Donaldo Colosio)가 1994년 3월23일 멕시코 북서부인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로마스 따우리나스에서 암살되었다. 콜로시오의 암살은 1929년에 구축한 멕시코 정치체계에서 전통적인 정치게임 규칙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1994년 9월28일 멕시코 수도에서 PRI의 사무총장인 호세 프란시스코(José Francisco)가 암살되었다. 콜로시오 암살 이후 일년 이내에 발생한 제2 정치범죄였다. 넷째로 1994년 12월 20일부터 1995년 초까지 현대 역사상 높은 파장의 경제위기가 발생했으며, 그 파장은 멕시코 국내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경제·정치·선거의 측면을 다루는바, 이해를 돕기 위해 분리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의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해 각각의 요인들 자체의 중요성보다 그들간의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명을 위해 3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정치적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되는 선거법과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 1) 경제적 요인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멕시코는 국가에 의한 산업화의 과정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경제적·정치적 프로젝트는 멕시코 역사상 오랜 동안 유지되었으며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시기였다(1950-1970). 이후에,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멕시코의 위기는 새로운 경제적·정치적 행위자와 새로운 요구·이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들 중에 일부는 명확하게 미주지역시장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세계시장을 지향했다. 이러한 70년대와 80년대의 위기는 멕시코의 자본축적 모델의 고갈과 세계경제와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멕시코 경제를 규정짓는 조건들의 변화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 경제의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요인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바, 첫째는 내부적인 요소로써 60년대까지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외부적인 요인으로써 70년대와 80년대에 서 수입대체 경제발전 모델은 세계경제 변화로 인해 마침내 구체적인 문제를 노정시켰다.

## (1) 내부적 요인

◆ 기본적으로 1954-1970년 동안에 멕시코 경제가 보호적인 수입대체 전략의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 주었지만, 1970년 이후에 폭넓은 가격의 등락과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세계적 경제불황과 경기수축으로 인해 멕시코 수입대체 전략은 불안정해졌다.

◆ 1976년, 1982년, 1987년, 1994년에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바, 처음에는 경제위기가 내부적인 특징을 보여주었으나, 이후에는 특히 1982년부터는 멕시코의 부적절한 통화·재정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저축을 통한 외채로 인해 외부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 (2) 외부적 요인

◆ 수입대체 모델의 고갈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 정부는 석유라는 자연 자원 덕택에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통치엘리트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했다. 세계 원유가격의 등락은 불안정한 멕시코 경제 때문에 지속적이고 지탱할 수 없는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역동성은 다시 1985년 기점을 전후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1985년 이전 : 수입대체 모델의 점진적인 쇠퇴

## - 내부시장의 한계

- 한편으로는 모든 멕시코 중간 자본재는 높은 수입모델에 의지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멕시코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금융자본은 국제시장에 의존한다. 따라서 멕시코 경제가 커질수록 더욱 많은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초래했다. 따라서, 수입대체 모델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멕시코의 낮은 위상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경제발전 모델이었다.

## ◇ 1985년 이후 : 급격한 경제자유화로 선회

- 수입대체 모델의 실패에서 멕시코 경제는 경제자유화(민영화)와 분권화로 경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이전의 수입대체 모델은 구체적 인 산업수준에서 지역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화 현상을 나타내는 바, 산업과 부문 내에서 그리고 산업과 부문 사이에 연계가 부족하여 산업 전후방 연관 효과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는 미국·캐나다 그리고 몇몇의 중남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할 구조적인 도구로써, 세계경제에 멕시코 경제를 편입시킬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발전모델에 부정적 요소도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1970-1995년 기간 동안에 경제적·금융적인 형태로 매 6년마다 되풀이되는 규칙적 위기는 멕시코 통치엘리트가 오랜 동안의 통치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실수 비용을 선거에서 지불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통해 지배해 왔던 통치공학 시스템에 민주주의가 부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정치적 요인

경제모델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그 나라의 독특한 상황에 의해 정치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멕시코의 역동성에 의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내부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지는 바, 전자는 지배연합과 관련이 있으며, 후자는 시민사회와 관련이 있다.

### (1) 내부적 요인

◆ 멕시코 현실과 특히 집중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파워블럭 내부의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PRI 내부의 '민주파'의 존재, 이후에 PRI와 행정부간의 인식 편차.

◆ 이러한 상황인식 편차의 결과로써 파워블럭의 균열 발생.

### (2) 외부적 요인

◆ 파워블럭의 내부적 교환과 결과적으로 파워블럭의 외부적 교환과 관련이 있는 변화 요인으로써 시민사회 출현과 시민의식 발전.

◆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에, 미국과의 지정학적 근접성은 멕시코 정치자유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서로 상존하며, 비록 최종적으로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고 차라리 이해의 변증법적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민주화가 향상될 수록 경제모델은 더욱 자유화된다.

### 3) 선거법

멕시코의 정치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야당은 그들의 모든 여력을 정치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인 시민의 투표를 활용했다. 그래서 선거법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야당은 모든 노력을 동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에 선거법 개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거법의 개정은 결과적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이해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멕시코 정치분야에서 새로운 정당을 위한 정치적 스펙트럼 공간 확장을 허용했다. 1987년 선거법 개정은 멕시코 정치체계에 실질적 야당인 민주혁명당(PRD) 출현을 가능케 했다. PRD의 출현은 위성 야당이 아니라, 멕시코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킨 강력한 폭발력을 갖춘 실질적 야당이었다. 1996년 새로운 선거법과 함께 실시한 1997년 선거에서 야당 전체는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 상대적 최다 득표를 획득함으로써 여소야대 정국을 출현시켰다. 또한, 1997년 선거에서 PRD 소속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멕시코 자치주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멕시코 정치체계는 개혁을 통해 특히 근본적인 선거법 개혁 덕택으로 점진적인 개방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이러한 변화과정은 2000년 선거에서 야당인 PAN 소속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멕시코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2000년에 정치 이행의 절정을 이루었다. 동시에, 야당 전체는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었으며, 멕시코 자치주 시장도 다른 야당인 PRD가 당선됨으로써, PRD 입장에서는 1997년 시장선거와 2000년 시장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승리했다. 또한 연방의 주지사들도 대부분 야당에 속한다. 이로써 멕시코 전반적인 권력구조와 수준에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 정치개방은 1987년, 1990년, 1993년, 1996년 선거법 개혁을 통해 독립적인 정치적 대표와 정치적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화의 지속적인 방법은 일관성 있는 개혁 프로젝트와 장기적 목표 안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때 당시의 갈등에 대처한 정치체제일반의 대응논리에 의한 고립적 대응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멕시코의 지속적인 자유화는 갈등의 표출시기에 안정의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권위주의 메커니즘의 대응방식으로써 당시의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멕시코에서 지속적인 자유화의 논리를 강력한 민주화 세력에 의해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기존 정치체계를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자유화가 여러 번 허용됨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멕시코 대표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장은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행위자들을 포함하려는 제도구축의 장기적인 역사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정권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모델의 산물이 아니고, 기존 정권의 변화는 사회적 동원과 갈등해결의 역사 자체의 귀결이다. 따라서, 정권의 장수는 변화에 대한 기존 정권의 높은 적응능력과 동화능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아무리 제한적이고 불평등하더라도 정치적 교환 공간의 존재는 정치적 갈등영역을 규정하고 그러한 갈등의 결정수단을 구축하는데, 사회적·정치적 행위자들의 행위를 문화적 상징 코드로 안내하는 형식적·비형식적 규칙과 기준의 전체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멕시코의 민주주의를 향한 권력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변화는 아직도 선거법의 새로운 개정을 요구하는바, 그러한 선거법 개정은 정당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과 대중매체 접근권을 구축하고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뿐만 아니라 선거기관의 역할도 법으로 규정하여, 입법부·사법부·행정부로부터 선거기관의 재정과 구성의 진정한 독립에 의해 선거와 정당과 관련된 영역에서 진정으로 독립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원의 범위 내에서는 연방하원의원의 재임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연방하원의원으로써 정치인들의 전문영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해할 수 있듯이 이런 모든 것은 멕시코 정치체제가 개방 때문에 점차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이해를 더욱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 V. 맺는 말

1968-1988년 20년 동안 멕시코를 황폐화시킨 기본적으로는 경제위기에서 파생된 반복적인 정치위기로 멕시코 국민은 고통을 받았다. 1968-1988년 동안에 특히, 1976·1982·1987년에는 좀더 심각한 경제 위기적 국면에 직면했다. 비록 이 시기 동안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이 상당히 침하되었지만, 그것의 분수령은 1988년 대통령 선거 당일에 발생한 선거결과 집계시스템의

붕괴로 촉발되었다. 그로 인해, 살리나스 정부는 임기 내내 부정선거로 인한 정치 정당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1988-1997년 동안 특히, 1988·1994·1997년에 비록 1968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변화계적 총체의 에너지가 가장 약한 정치지층을 타고 올라온 일시적인 분출로써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그 지각변동은 1929년부터 멕시코 정치체제를 지탱해온 정치무대의 폭과 깊이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1968년 학생운동 이후로 2번의 선거법 개혁이 있었던 바, 하나는 1970년 이고 다른 하나는 1973년에 새롭게 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두 선거법 개혁은 헤게모니 정당의 제왕적 대통령과의 특징을 계속 유지했고, 다만 예전 선거법의 공동책임이란 측면에서 변화가 약간 있었다. 1976년 경제위기 이후인 1977년에 정부에 대한 선거과정의 상대적 독립을 생각해 하는 선거과정의 미온적인 개혁이 있었다. 반면에, 1987-1996년 동안, 즉 10년 이내에, 선거체제에 매우 중요한 4번의 선거결과는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별할 사법부적 선거재판을 구축했고, 멕시코 자치주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자율적인 지방정부를 구성했으며, 새로운 정당설립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몇몇의 조항을 변경했으며, 특히 모든 선거의 조직과정에 매우 의미 있는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지점에서 경제적·정치적·선거적 중심 축이 서로 만나게 되는 바,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기적으로 정치자유화로 인한 경제위기와 국제적 재원을 통한 위기탈출 필요성이라는 2개의 선택이 멕시코에 존재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점증하는 정치자유화로 인해 멕시코 정치공간은 자체 결정능력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거측면에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모든 요인에 의해 선거법 개혁 없이는 실질적으로 멕시코가 민주주의에 이를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3개의 중심 축인 경제적 요소, 정치적 요소, 선거적 요소 등은 각각 그 스스로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치이행 과정에서 32년이라는(1968-2000) 구체적인 시간의 축을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마침내 3개의 과정이 민주주의로 수렴된다. 이 3개의 과정은 멕시코 정치이행 과정을 특징짓고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의 일관적인 인식의 틀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3개의 과정 중에서 특히 선거적 요소는 점증하는 정치자유화를 통해서 사회적인 요소와 함께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이행의 기본조건이 성숙된다. 선거

적 요소는 이러한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공간에서 전개되는 경제적·정치적 공간의 점차적이고 정기적인 개방과 함께 일시적으로 일치하며, 이러한 효과는 다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피드백 효과를 낳는다.

멕시코는 2000년 7월 선거로 마침내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멕시코 정치이행은 오랜 시간의 혼란스런 복잡함으로 부분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중요한 3개 과정의 통합적이고 분석적인 시도의 노력은 32년의 멕시코 정치이행 과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guayo Quezada, Sergio y Bailey John (coordinadores), *Las seguridades de México y Estados Unidos en un momento de transición*, Editorial Siglo XXI, México 1997.
- Aguila Franco, Carlos, *1995: la realidad de los partidos políticos*, Triana Editores, México 1995.
- Alcocer V. Jorge, *Dinero y Partidos*, Nuevo Horizonte Editores, México 1993.
- Andrade Sanchez, Eduardo, “La reforma política de 1996 en México”, *Cuadernos Constitucionales México-Centroamérica*, No. 25, México 1997.
- Anguiano Arturo (coordinador), *La transición democrática*, Universidad Autónoma Metroplotana, México 1988.
- Aspe Armella, Pedro, *El camino mexicano de la transformación económica*, Editorial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93.
- Basáñez Miguel, *La lucha por la hegemonía en México 1968-1990*, Editorial Siglo XXI, México 1990.
- \_\_\_\_\_, *El pulso de los sexenios: 20 años de crisis en México*, Editorial Siglo XXI, México 1990.
- Becerra Ricardo, Salazar Pedro y Woldenbergo José, *La reforma electoral de 1996*. Editorial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97.

- Bellinghausen Hermann e Hiriart Hugo, *Pensar el 68*, Editorial Cal y Arena, México, 1988.
- Brachet-Márquez, Viviane, *The Dynamics of Domination. State, Class and Social Reform in Mexico 1910-1990*,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4.
- Camacho Solis, Manuel, *Cambio sin ruptura*, Alianza Editorial, México 1994.
- Cárdenas, Enrique, *La política económica en México, 1950-1994*, El Colegio de México, Fideicomiso Historia de las Américas y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96.
- Cansino César, *México: una transición inconclusa 1977-1994*, El Colegio de México, México 1995.
- \_\_\_\_\_, *Después del PRI*, Centro de Estudios de Política Comparada, México 1998.
- Carrión Jorge, *Tres culturas en agonía*, Editorial Nuestro Tiempo, México 1969.
- Guevara Niebla, "Antecedentes y desarrollo del movimiento de 1968", *Cuadernos Políticos*, No. 17, Septiembre 1978 México.
- Imaz Bayona, Cecilia, "El apoyo popular al movimiento estudiantil de 1968",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vol. 37, No.2 Abril-Junio, México 1975.
- López Portillo, José, VI Informe de gobierno, 1 de septiembre de 1982, México.
- Macías Tello, *La política económica en México 1970-1976*, Editorial Siglo XXI, México 1979.
- Maxfield, S. y Anzaldúa Montoya, R (eds.), *Government and private in contemporary Mexico*, La Jolla,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987.
- Perzabal, C., *Acumulación capitalista dependiente y subordinada: el caso de México 1940-1978*, Editorial Siglo XXI, México 1979.
- Ramírez Ramón, *El movimiento estudiantil de México*, Edición ERA, México 1969.
- Rubén Venadero, "Órgano del movimiento estudiantil independiente", *Revista*



*Perspectiva*, No. 1 15-30 de octubre de 1971, México.

Salazar Ham, Sonia, *Transición a la democracia en el Distrito Federal: reforma política 1987-1995*, Tesis de UNAM, México 1996.

Semo Ilán, Loaeza Soledad y Bellingeri Marco, *La transición interrumpida, México 1968-1988*, Universidad Iberoamericana, Editorial Nueva Imagen, México 1993.

Zermiño Sergio, *México: una democracia utópica. El movimiento estudiantil del 68*. Editorial Siglo XXI, México 1978.